

書評

이수미 지음,

『〈태평성시도〉연구: 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

(진인진, 2024)

장준구*



『〈태평성시도〉연구: 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는 18~19세기 조선의 이례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작품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成市圖)〉를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서이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병풍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전반에 걸쳐 보완이 이루어졌다. 〈태평성시도〉라는 유례없는 작품의 내용, 표현방식, 제작자, 성격에 이르기까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책 내용의 핵심이다.

〈태평성시도〉의 경우 2002년 《조선시대 풍속화》전에 처음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전혀 주목 받지 못했으며,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 역시 전무했다. 당시까지의 한국 회화사 연구가 산수화와 문인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측면도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해당 전시의 담당자로서 처음으로 이 작품을 발굴하고 조사, 연구한 인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후 오랫동안 〈태평성시도〉에 대해서 궁구(窮究)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태평성시도〉의 미술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처음으로 그것도 완전(完整)하게 밝혀낸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유재빈 교수가 내용 전체의 의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좋은 서평을 쓴 바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존의 서평에서 분량상 다루지 못한 책의 세부 내용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¹

이 책은 크게 <태평성시도>의 연원, ‘인물과 동물의 표현’, ‘사물 및 건물의 표현’, ‘회화사적 특징’, ‘제작의도’로 구성되어있다. 저자는 이러한 체재를 통해 <태평성시도>를 정치하게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중국적 요소가 조선화(朝鮮化), 이상화(理想化)된 것임을 차분히 논증했다.

그려진 인물, 기물, 건물, 동물에 대한 집요하고도 풍부한 설명은 이 책의 커다란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다보면 독자는 높이 113.6cm, 폭 392.8cm의 커다란 화면에 그려진 그림의 모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작품 전체의 인원수, 화면 당 대략적인 인원수, 직업별 인원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원수 등을 분석한 것은 바로 저자의 이러한 실증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연행록(燕行錄)을 비롯한 각종 문집과의 적극적인 비교 검토이다. 이는 <태평성시도>와 내용적으로 일치도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저자의 일관된 논지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 덕분에 “북경에 있을 때 … 눈에 띄는 게 너무 보배롭고 기이하여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 저는 그 길이 처음인지라 하도 놀랍고 미혹하여, 삼관이 어쩔하고 오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한 책에 인용된 골동품 수집가 전사가(田仕可)가 박지원(朴趾源)에게 쓴 편지의 내용처럼 중국에 대한 이상(理想)과 조선의 실상이 작품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책의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상황 상태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원래의 상태를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² 이는 단순히 <태평성시도>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사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으로서 여타 연구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여겨진다.

한편 이 책은 <태평성시도>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단원

1 유재빈, 「서평: <태평성시도>연구-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 『미술사학연구』 324 (2025), pp. 131-133.

2 이수미, 『<태평성시도>연구: 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 (진인진, 2024), pp. 209-212.

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과 같은 중국 및 한국의 다양한 그림과 비교 분석했다. 이 덕분에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태평성시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타 관련 회화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천연색의 풍부한 세부 도판을 통해 <태평성시도>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요소를 마치 도록처럼 속속들이 볼 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즐거움이다.